주님 승천 대축일 강론(2019년 6월 2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어느날 시내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장터를 거쳐 가는 버스라 늘 승객들이 만원입니다. 장바구니 가득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라 버스 안이 늘 왁자지껄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버스 안에서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그치겠지 했던 아기의 울음소리는 몇 정거장을 거쳐 가는 동안에도 그칠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슬슬 승객들이 여기 저기서 인상을 쓰고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아줌마, 애기 좀 잘 달래 봐요.” “버스 전세 냈나.” “이봐요. 아줌마 내려서 택시 타고 가요! 여러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아~짜증 나, 정말.”

 우는 아기와 그 엄마에 대한 짜증이 버스 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그때, 정류장에 멈춘 그 버스의 운전기사가 얼른 버스 밖으로 내립니다.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버스기사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기사는 한참 지나서 다시 버스에 오릅니다. 그리고는 성큼성큼 아기 엄마에게로 다가서 긴 막대사탕의 비닐을 벗겨 아기 입에 물려줍니다. 그제야 아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다시 버스는 출발을 했고, 버스 안은 별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시끌벅적해집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하는 아이 엄마는 버스기사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손등에 다른 한 손” 을 세워서 두번 저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수화로 고마움을 표현한 아이 엄마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기와 엄마가 내리는 것을 버스기사가 일어나서 도와줍니다. 아주머니는 다시 수화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버스 기사는 엄마와 아이가 가는 것을 손을 흔들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 누구 하나 “빨리 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은 빨리 가자고 성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반응이 서로 제각기 다릅니다. 마치 각자가 만든 자기만의 틀 안에 끼워 맞춰서 무언가를 바라보려 합니다. 청각 장애인 아기 엄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지닌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레임 이론’ 입니다.

 어느 날, 신학생이 영성지도 신부님께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신부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다니 절대 그러면 안되지요.”

 다음날, 기도하는 방법 때문에 늘 고민이 많았던 그 신학생은 신부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신부님, 담배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해도 되나요?” 그 신부님은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지.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각의 ‘틀’만 바꾸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좋은 판단의 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건을 기분 좋게 바라보고, 나쁜 판단의 틀을 가진 사람은 기분 좋은 일에도 기분 나빠하고, 별로 성질낼 일도 아닌데, 화내고 난리를 부립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는 이유가 그런거죠. 각자가 가진 ‘생각의 틀’에 따라 기분도 정해지고 행복도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면 성질나죠. 그냥 성질만 내고 있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않고, 다행히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졌으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코넬 대학 심리학 팀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에 있었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한 것이었는데, 기쁜 표정을 짓는 선수의 순서는 금, 은, 동 메달의 순서가 이 아니라 금, 동, 은 메달의 순서였습니다. 분석 팀에서는 그 이유를 자신이 가진 생각의 ‘틀’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의 표정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메달을 딴 선수는 아쉽고 억울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텐데.’ 금메달의 시각으로 자신의 은메달을 생각하니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동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야, 동메달이라도 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행복하고 환한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은메달이 분명 동메달보다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금메달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커서 은메달은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오히려 더 낮은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가진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행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 수록 행복해 집니다. 즉,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의 틀,’ 즉 ‘프레임’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복음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는 대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 사건의 최고 절정은 바로 이 승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장장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야산에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빌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시야에서 사라질때 까지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꿈이야 생시야. 이게 뭔 일이 이런 일이 다있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 그 분의 탄생과 삶, 그리고 그 분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참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부활과 승천 때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절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엄청난 사건인 부활과 승천에 대한 생생한 목격. 이것이 세상을 바꾸었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절대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생각의 틀,’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 가시고, 완전히 눈에서 사라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 까요? 할말도 다 잃은 채... 그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하고 놀라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세상으로 힘차게 달려 나갑니다.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외쳐댑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목숨을 걸고 일생을 바쳐서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냥 교회가 그렇게 믿으라고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진짜로 직접 목격한 제자들에 의해서 생생하게 전해진 실제 사건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뻥치지 마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 나라는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늘에 올라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우리 미래의 운명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대축일은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운명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우리의 축복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걱정 많고, 고단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 우리는 모두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 받았고,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 나라, 천상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은총이죠.

 우리의 인생길은 하늘 나라가 종착점인 여정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하늘로 승천하는 신앙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고 대단한 신앙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 살이가 조금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생각의 ‘틀,’ 생각의 ‘프레임’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프레임의 전환!’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늘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